

행정안전부,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 점검 나선다

-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, 4월 15일 추진상황 점검 영상회의 개최
- 향후 현장 관리 등 차질없는 행사를 위해 철저한 관리 예정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우선, 오늘(4월 15일)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은 황기연 전남지사권한 대행, 정현구 여수시장권한대행이 참석한 영상회의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.
- 특히, 김 차관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공사 지연 우려를 언급하며,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.
- 아울러 주차장 확보, 셔틀버스 운행, 교통혼잡 대책, 화장실·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을 집중 점검하며, 관람객 이동 전반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.
- 더불어, 섬박람회 기간 중 많은 관람객이 여수에 있는 섬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남은 기간 화장실, 관람객 쉼터 등 부족한 시설을 신속히 보완하고 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.
- 한편,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행사 개최를 위해 금오도와 개도를 비롯한 주요 섬의 관람객 이동식 화장실 설치, 해양쓰레기 처리 등에 필요한 예산 33억 원을 여수시에 긴급 지원한다.

-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에서 개최되며, ‘섬, 바다와 미래를 잇다’를 주제로 열린다.
- 주행사장에서는 미디어 파사드를 감상할 수 있는 주제관을 비롯해, 섬의 가치와 미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이 마련되며, 금오도, 개도 등 실제 섬을 방문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.
 - ※ 섬해양생태관, 섬놀이터, 섬식당마켓관, 위그선 시승 행사 등
-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은 “이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박람회로, 섬 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행사”라며,
 - “정부는 여수시, 전라남도과 긴밀히 협력하여 준비 과정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,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.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름다운 우리 섬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자치혁신실 균형발전진흥과	책임자	과 장	박유정 (044-205-3530)
		담당자	서기관	정태욱 (044-205-3524)

